일 주 문



군승 日불교 성지순례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10월 10~14일 영관 군승법사 16명을 대상으로 일본불교 성지순례를 실시했다.



무심사 제3회 산사음악회

무심 대구 낙동강 무심사 주지 스님은 10월 30일 경내에서 '무심사 제3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제5회 법일문화재

묘명 산청 대원사 주지 스님은 10월 15~16일 경내에서 지역민 초청 '제5회 만허당 법일문화재'를 개최했다.



'이뭣꼬' 서울공연

선상신 BBS불교방송사장은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더 케이 아트홀서 깨달음의 연극 '이뭣꼬!'를 공연한다.



이주민 독감예방 캠페인

황채운 날마다좋은날 반갑다연우야 봉사단장은 10월 12~15일 서울 적십자병원서 '다문화 및 이주민 독감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불교+인문' 대안 공동체 조성"

복합문화운동단체 미르문화원 개원한 명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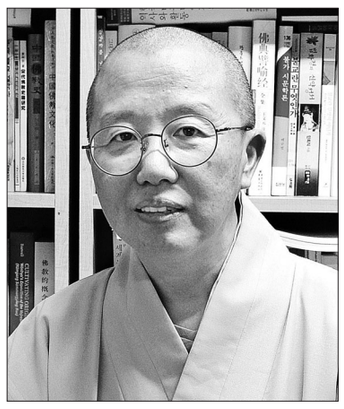
"미르문화원은 불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살피는 복합문화운동단체입니다. 불교와 인문, 환경, 수행을 결합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10월 9일 서울 마포에 문을 연 미르문화원에 대해 명법 스님은 이 같이 설명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미르문화원의 창립 이전부터 뜻을 함께 한 명법 스님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미르문화원은 스님을 중심으로 대표인 이승숙 씨 등이 서울대 재학시절에 수행과 기부를 위한 생활공동체를 구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명법 스님을 비롯한 도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단체를 창립해 이끌어왔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문화 단체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함께 모여 뜻을 펼칠 인연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르문화원을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미르문화원은 은유와마음연구소, 무빙템플, 삶ㅇ, 땅과 얼의 4개 단체가 가입된 연합 조직의 형식을 띤다.



은유硏·무빙템플 등 연합 결성

불교 바탕한 다양한 사업 전개

자비행 실천위한 봉사 활동도

각자 단체마다 갖는 특색도 명확하다. 명법 스님이 대표로 있는 은유와마음연구소는 불교와 명상, 인문학의 학제간 연구와 교육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명상지도자협회 회원단체로서 명상과 은유치료를 개발·보급하고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빙템플도 명법 스님과 함께 새로운 불교 공동체를 지향하는 단체이다. 열린 공간에서 사부대중이 만나 수행하고 공부하며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다.

땅과 얼(대표 윤승서)은 한국 전통 활법 및 태극권, 요가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 문화 활성화를 추진하며, 삶ㅇ(대표 이승숙)은 수행과 명상 교육 등을 통해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다.

우선적으로 미르문화원은 소속 단체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자유롭게 진행하는 장으로 활용된다. 당장 명법 스님의 은유와마음연구소는 11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미르문화원에서 '불교와 현대철학 세미나'를 진행한다. 명법 스님을 좌장으로 조현수 능인대학원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베르그송의 생명 철학'을 설명하고 들뢰즈의 책 '마조히즘'과 '차이와 반복'을 강독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학교'도 준비 중이다.

"4개 단체가 연합하고 있지만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르문화원 자체가 '연합 대안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불교와 인문학, 수행, 봉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미르문화원 개원은 그 시작입니다."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 청년 가을운동회

안양 삼성초교서… 본원·지원 300명 동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10월 16일 안양 삼성초등학교에서 '한마음선원 전국청년연합 가을 운동회'를 개최했다. 본원 및 각 지원 청년회 300여 명이 참가한 운동회는 구기종목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젊은이다운 패기를 갖고 대장부처럼 경기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운동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지명 스님 조동종 대법사 추대

10월 16일, 양주 보리사서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은 10월 16일 양주 장흥면 보리사서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해 부종정, 승정원장, 종회의장, 감찰원장 등 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동종 제3~5세 종정 덕찬당 지명 대선사의 대법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포교대상 '종정상' 無… 14명 수상

조계종 포교원, 공로상 6명·원력상 8명 선정

제28회 포교대상이 대상인 종정상 수상자 없이 공로상(총무원장상)과 원력상(포교원장상) 수상자 14명을 선정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0월 19일 제28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는 공로상에 지공 스님(황룡사 주지)·공영호 법사(육군3군사령부)·함현준 법사(육군사관학교)·정갑윤 의원(새누리당)·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신영훈(한옥건축가) 등 6명을 선정했다.

원력상은 응관 스님(심원사 주지)·윤창화(민족사 대표)·어윤식(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김미숙(보건복지부)·이승표(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우인보(동국대 학교부속 영석고교)·실상사 작은학교·이두석(국제포교사) 등 개인 7명과 단체 1곳이 받는다. 대상은 후보자가 없어 선정하지 못했다. 이는 1998년 제10회 포교대상 이후 처음이다.

제28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11월 3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봉행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소식 불교계 축구동호회 FC붓다를 비롯한 교계 8개팀은 10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동국대 운동장서 '제5회 불자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천진불 모여 운동하니 '와글와글'

조계종 직할교구, 천진불 어울림한마당

조계종 직할교구는 10월 16일 동국대 대운동장서 '반갑다 친구야 와글와글 운동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소재 사찰 어린이법회 아이들과 학부모, 지도법사 등 1000여 명이 운집한 운동회는 친목 도모와 어린이법회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을 하고, 몸 풀기 체조를 마친 아이들은 △대형 젠가 만들기 △신발다트 △풍선테이프 떼기 △종이컵 쌓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겼다. 아이들이 한데 어우러져 운동하는 시간에 부모들은 서로 평소 나누지 못한 얘기를 풀어놓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오후에는 사찰별 장기자랑과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경기가 이어졌다. 아울러 법명 스님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은 운동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박수갈채를 받았다.

화계사 이지현 양은 "평소 사찰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큰 운동장에서 놀 수 있어 즐겁다"며 "할 수 있는 게임이 많아 좋다. 내년에도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언론문화상 TBC '무문관' 대상

조계종 총무원 주최, 시상식 11월 2일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TBC가 제작한 2부작 '무문관'이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10월 17일 제24회 불교언론문화상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상작은 △대상-TBC 2부작 '무문관' △방송부문 최우수상-KBS '하늘에서 본 암자', 우수상-MBC 스페셜 '세상을 토닥토닥'과 부산BBS '우리들의 찬불가' △신문부문 최우수상-법보신문 연중기획 '불자답게 삽시다', 우수상-불교신문 '봉은사 한전부지 매각사건' △뉴미디어부문 우수상-BBS '붓다핸섭 시즌1 쇼미 더 붓다-랩하는 스님들' △특별상-버디필름 영화 'Bring Home-아버지의 땅'과 '월간 불광 500호' 등이 선정됐다. 불교언론인상은 정일태 언론사불자연합회장(KBS보도본부 해설위원)이 영예를 안았다.

대상작인 TBC '무문관'은 3년 동안 무문관 수행촬영을 통해 스님들의 결연한 수행과 사찰의 사계절 영상을 담아냈다. 화두를 깨치기 위한 스님들의 무문관 정진과 함께 종교인으로서의 고뇌 등을 잘 전한 수작으로 평가됐다.

방송부문 최우수상 KBS '하늘에서 본 암자'는 남해 보리암서부터 설악산 봉정암까지 남북으로 뻗은 1625㎞ 길이의 백두대간을 따라 하늘서 내려다 본 암자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을 담아냈다는 평가다. 신문부문 최우수상 법보신문 '불자답게 삽시다'는 불자로서 갖춰야할 소양 37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생활에서 느끼는 불자들의 고민을 잘 반영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불교복지 인재 양성 '박차'

조계종복지재단·동국대 불교대학원 M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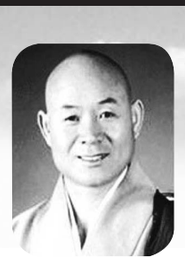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동국대 불교대학(원)은 10월 19일 동국대 법학원 1층 불교대학장실서 '사회복지인재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불교사회복지교육 협력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토대로 협력 활동을 이어나가게 된다. **박아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10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